

중국 휴머노이드 대장주 유니트리 상장 임박



Hana China Weekly | 2026.8.14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유니트리(비상장): 개인투자자 당첨률 0.018% 기록

- 유니트리(688836.CH) 상장일은 8월 17~21일 사이 상장 유력, 추후 상하이거래소 최종 확정 공시 예정. 지난 8/10 유니트리 IPO 온라인 청약에는 약 978만 계좌가 참여해 과창판 역대 최대를 기록.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약 1/4 수준까지 확대. 물량 재배정 이후 최종 당첨률은 0.0181%(5,526:1)로 과창판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이는 CXMT, 무어스레드, 메타엑스의 최근 IPO보다도 당첨 확률이 낮은 수준. 8/11 유니트리는 IPO 배정 결과를 발표. 총 공모물량 4,044.6만주 중 전략적 투자자 20%, 기관 56%, 개인 24%를 최종 배정.
- 8/13 유니트리는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생산량이 약 1.8만대에 달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5월 G1 누적 생산량 1.1만대 대비 약 7,000대 증가한 수준. 최근 3개월 월평균 생산량은 약 2,300대로 확대되며 양산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텐센트(0700.HK): AI 투자 확대로 2Q26 잉여현금흐름 적자 기록

- 8/12 텐센트는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2,048억위안(YoY +11%)으로 컨센서스 1.0% 상회, 조정 순이익은 684억위안(YoY +8.4%)으로 컨센서스 682억위안에 부합. AI 투자 확대로 2분기 Capex가 528억위안으로 YoY +176%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321억위안)을 크게 상회. 자본지출 크게 증가하며 138억위안의 대규모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을 기록, 연산 자원 선금급을 제외 시 잉여현금흐름은 376억위안 흑자.
- 텐센트는 3분기에도 컴퓨팅 자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AI 모델·응용 매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 동시에 기존 사업도 강화해 광고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작 게임의 호조, WeChat 영상 계정의 빠른 조회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AI 투자가 본격화되며 단기적으로 현금흐름 부담은 커졌지만, 향후 AI 투자가 실제 수익 증가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Z.AI(2513.HK): 오픈플랫폼 API 사용자와 ARR 빠르게 증가

- Z.AI의 MaaS 오픈플랫폼 API 사용자가 700만 명에 육박, 7월 초 대비 약 200만명 증가. 오픈AI 코텍스에 대응하는 개발자 제품 ZCode는 출시 1개월 만에 사용자 100만명 돌파. 올해 들어 ARR이 15배 증가하였으며 Kimi·알리바바 신모델 출시 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 일부 투자자는 ARR이 20억달러에 도달했다고 전했으나 Z.AI는 이를 부인,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 국산 대형모델 진영의 개발자 저변과 수익화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

SMIC

상장 국가

홍콩, 중국

섹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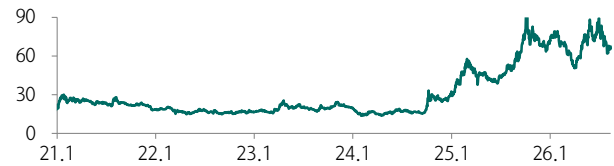
반도체

시가총액(조원)

73.4

최근 주가 추이

(HKD)



2Q26 Re: 매출/GPM 모두 가이드스 큰 폭 상회, 3Q GPM 추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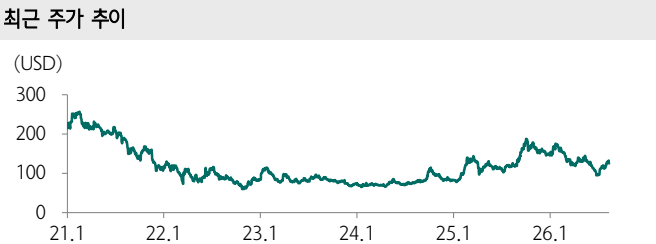
- 매출은 30.1억USD(QoQ +20.0%, YoY +36.1%)로 가이드스(QoQ +14~16%) 상회, 컨센서스(28.6억) 5.2% 상회하며 분기 매출 최초로 30억달러 돌파. GPM은 25.3%(QoQ +5.2%p, YoY +4.9%p)로 ASP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에 기인해 가이드스(20~22%) 큰 폭 상회. GAAP 순이익은 4.8억USD(QoQ +143%, YoY +262%)로 컨센서스(2.6억) 84.6% 상회.
- 중국의 AI 연산, 전기차 시장 확대에 중국 팹리스 업체 주문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며, 2Q26 SMIC의 가동률은 93.7%(QoQ +0.6%p, YoY +1.2%p)과 출하량은 287만장(QoQ +14.4%, YoY +20.1%)으로 전분기 대비 확장세 지속. 총 생산능력(8인치 환산)은 월 109.7만장(QoQ +1.7%, YoY +10.6%) 기록.
- 3Q26 가이드스는 매출 QoQ +2~4% 증가, GPM 26~28%로 제시. 매출 QoQ 증가세 둔화가 전망되나, 높은 가동률과 가격 인상을 통한 ASP 상승이 감가상각 부담을 상쇄하며 3분기 GPM이 추가 개선되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

중국 매출 산업용 AI, 엣지 컴퓨팅, 전기차 수요 증가로 고성장세 시현

- 지역별 매출은 중국 27.1억USD(QoQ +21.7%, YoY +45.9%), 미국 2.5억USD(QoQ +5.8%, YoY -13.5%), 유라시아 0.5억USD(QoQ +6.6%, YoY -27.4%)으로 중국 지역 매출 높은 증가세 보이며 중국 매출 비중 90.2%로 1Q26 88.9%에서 추가 상승.
- 응용처별 매출은 소비자전 13.3억USD(QoQ +14.8%, YoY +46.7%), 스마트폰 5.1억USD(QoQ +7.3%, YoY -8.8%), PC/태블릿 4.7억USD(QoQ +37.6%, YoY +41.5%), 산업/차량용 5.0억USD(QoQ +41.4%, YoY +111.8%), IoT 2.0억USD(QoQ +11.7%, YoY +12.8%)로 산업용 AI와 전기차 부문, 엣지 컴퓨팅 수요 증가로 PC/태블릿 부문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AI 수요 증가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PMIC, 전력공급(BCD), 특수 메모리 등 각종 주변 반도체 수요까지 견인 중. 경영진은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존 생산능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라인의 램프업을 가속해 공급 부족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스마트폰 제품 생산 비중 축소와 산업용/AI 관련 제품 우선적 생산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이는 ASP 상승에 기여할 전망.

알리바바

상장 국가
홍콩, 미국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422.8



완전 모듈화 설계 기반 데이터센터 인도 기간 100일로 단축

- 8/10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자체 개발한 완전 모듈화 설계(CUBE 5.0)를 기반으로 대형 AI 데이터센터 인도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고 발표. 국내 통상 6~12개월, 미국 12~18개월 대비 크게 짧고, 건설 원가도 이전 세대보다 10% 이상 절감. 단위면적 컴퓨팅 밀도는 이전 세대의 5~10배, 냉각 효율(PUE)도 개선. 올해 모듈화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캐파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모듈 사전 제작률을 기존 약 30%에서 90%까지 높여 공기를 단축한 것이 핵심. AI CAPEX 확대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와 투자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며 컴퓨팅 capa 확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AI 오피스 어시스턴트에 유료 구독제 도입

- 8/11 SCMP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Qwen 앱의 AI 오피스 어시스턴트에 유료 구독제를 도입. 앱스토어 기준 연 200위안(약 30달러)부터 플래그십 1,499위안까지 3개 등급으로 제공하며, 영상 생성 크레딧은 별도로 26~968위안에 판매, 챗봇 자체는 무료 유지. 무료 사용자 기반 확대에 집중했던 Qwen이 유료 구독을 도입하며 직접 수익화 단계로 진입. 향후 API와 클라우드뿐 아니라 구독·상업용 모델 라이선스 등으로 AI 수익화 채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

자체 칩 기반 슈퍼노드 클라우드 시스템 출범

- 8/12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자체 칩 M890 기반 슈퍼노드 인스턴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 기업 고객이 64카드 고속 인터커넥트 컴퓨팅 유닛을 클라우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Kimi K3와 자사 Qwen3.8-Max가 이미 M890 기반으로 서비스 중. 자체 AI 칩을 내부 모델 구동에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외부 고객 대상 클라우드 상품으로 상용화하며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하는 행보로 평가.

텐센트

상장 국가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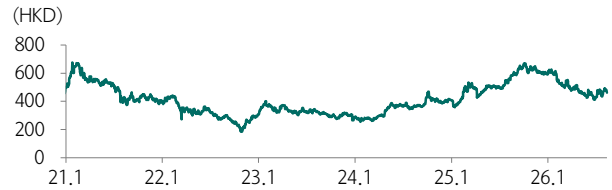
섹터

온라인 서비스

시가총액(조원)

724.6

최근 주가 추이



2Q26 Re: AI 투자 확대로 잉여현금흐름 적자 기록

- 8/12 텐센트는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2,048억위안(YoY +11%)으로 컨센서스 1.0% 상회, 조정 순이익은 684억위안(YoY +8.4%)으로 컨센서스 682억위안에 부합.
- AI 투자 확대로 2분기 Capex가 528억위안으로 YoY +176%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321억위안)을 크게 상회. 자본지출 크게 증가하며 138억위안의 대규모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을 기록, 연산 자원 선급금을 제외 시 잉여현금흐름은 376억위안 흑자.
- 텐센트는 3분기에도 컴퓨팅 자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AI 모델·응용 매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 동시에 기존 사업도 강화해 광고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작 게임의 호조, WeChat 영상 계정의 빠른 조회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AI 투자가 본격화되며 단기적으로 현금흐름 부담은 커졌지만, 향후 AI 투자가 실제 수익 증가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핵심.

해외 IB, 펀더멘털 견조하나 AI 투자에 이익 정체될 것으로 전망

- 실적 발표 직후 8/13 Citi는 텐센트 매수 의견을 유지하되 목표주가는 763홍콩달러에서 758홍콩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 잠재적 자사주 매입, AI 투자와 AI를 통한 핵심 사업 강화가 텐센트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게임 사업의 견조한 흐름과 광고 매출의 안정적 성장으로 전체 매출 증가세는 탄탄하다고 평가. 다만 AI 지출 확대와 그에 따른 이익 부담에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며, 이를 반영해 이익 가정을 시장 컨센서스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 실제 2분기 자유현금흐름은 대규모 AI 컴퓨팅 투자로 -138억 위안을 기록했으나, AI 관련 지출과 컴퓨팅 선급금을 제외하면 +376억 위안으로 돌아서는 만큼 핵심 사업의 현금 창출력 자체는 견고하다고 진단.
- 8/11 모건스탠리는 견조한 핵심 펀더멘털이 AI 선행 투자에 상쇄돼 하반기부터 2027년 이익이 정체될 것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15% 이상 낮춘 550홍콩달러로 하향 조정. 2026~27년 CAPEX 전망을 2,000억위안으로 올리고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1.8%/12.3% 하향. 다만 잉여 AI 인프라를 텐센트 클라우드를 통해 외부에 임대해 수익화할 수 있어 하방을 방어한다고 평가.

AI/테크

Z.AI(2513.HK): 사용자 급증, 모건스탠리 목표 주가 72% 상향

- Z.AI의 MaaS 오픈플랫폼 API 사용자가 700만 명에 육박, 7월 초 대비 약 200만명 증가. 오픈AI 코덱스에 대응하는 개발자 제품 ZCode는 출시 1개월 만에 사용자 100만명 돌파. 올해 들어 ARRI가 15배 증가하였으며 Kimi·알리바바 신모델 출시 후에도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 일부 투자자는 ARRI가 20억달러에 도달했다고 전했으나 Z.AI는 이를 부인, 실제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 국산 대형모델 진영의 개발자 저변과 수익화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
- 8/11 모건스탠리가 Z.AI 목표주가를 기존 990홍콩달러에서 72% 상향한 1,700홍콩달러로 조정하고, 2026년 ARR 전망도 10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상향(2027년 예상 PSR 약 42배). 컴퓨팅 파워 확보 역량 강화와 신규 자금조달이 성장을 뒷받침하며 상업화-모델 성능의 선순환(플라이휠)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 GLM-5.2가 글로벌 최상위 모델 대열에 진입했고, 진짜 해자는 일시적 벤치마크 1위가 아니라 이 선순환을 지속 가동하는 능력이라고 진단. 중국 대형모델 산업이 저가 경쟁에서 성능·상업화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모델이 제품 동질화·가격 경쟁을 부를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

바이트댄스(비상장): Doubao, AI 챗봇 첫 호텔 예약 수수료로 수익화 시동

- 8/10부터 산하 AI 챗봇 Doubao를 통해 더우인 라이커로 연결돼 성사된 호텔 주문에 일괄 12% 종합 수수료를 부과(소프트웨어 서비스비 11.4%-결제 수수료 0.6%). AI 챗봇이 호텔 예약에 직접 수수료를 매긴 중국 첫 사례로, 사용자가 Doubao에 호텔을 물으면 별도 예약 앱으로 넘어가지 않고 챗봇 안에서 바로 예약이 완료되는 구조. 월 3.45억명·일 1억명 이용자를 실제 거래로 연결해, 그동안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던 방대한 AI 트래픽을 수익화하는 첫 실질 단계로 평가.

미니맥스(0100.HK): 지수 편입 기대로 반등

- 8/10 모건스탠리의 목표주가 10% 하향 조정에 익일 개장 직후 6%대 급락했으나 오후장 낙폭을 축소해 -1.2%로 마감. 앞서 영상모델 H3 공개와 강구통 편입으로 강세를 이어온 뒤 나온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점검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
- 8/13 HKEX Tech 100 및 HKEX Tech & US Tech 1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수급 개선 기대에 +1.7% 강세 마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가 반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모습.

반도체

CXMT(688825.SH): 애플향 메모리 공급 추진, 제약 요인 상존

- 8/9 WSJ에 따르면 애플이 글로벌 메모리 부족 완화를 위해 아이폰·맥북 등 여러 라인에서 CXMT 메모리를 테스트하며 부품 공급 초기 협의에 착수. 중국 내수용 기기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조달은 세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첫째, 대미 기술규제로 백악관 승인이 필요하고 맞춤형 협력은 막혀 표준 범용 제품 구매만 가능. 둘째, 올해 CXMT의 생산능력이 풀캐파에 근접해 바이트댄스·텐센트·샤오미 등 국내 고객 우선 배정으로 단기 추가 공급 여력이 제한적. 셋째, 제시가가 삼성·SK하이닉스와 유사하거나 높아 원가 절감 유인도 크지 않음. CXMT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의 8배로 급증하며 글로벌 D램 점유율 7%에 도달하는 등 위상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 앞서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8/21까지 답변을 요청한 만큼, 조달 수요와 규제 압박이 정면 교차하는 국면으로 판단.

무어스레드(688795.SH): 컴퓨팅 수요 급증에 순손실 대폭 축소

- 8/9 무어스레드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홍콩 증시 상장 계획을 공개. 매출액은 9.9억위안(YoY +141.9%)으로 국산 컴퓨팅 수요 급증에 힘입어 급성장, 순손실은 전년 1.7억위안에서 40.9만위안으로 축소되며 흑자 전환에 근접. 이사회는 H주 발행 및 홍콩 주판 상장안을 승인하였으며, 국제 전략 확대와 인재 확보,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제시.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GPU 개발사로 지난해 12월 과창반에 상장한 데 이어 홍콩 이중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이어지는 중국 테크 기업의 홍콩 상장 러시에 합류하는 모습.

반도체: 상하이시, AI 하드웨어 역량 강화 정책 발표

- 8/11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15·5 계획>을 발표. 2030년 산업 규모 4조위안, 부가가치 1.1조위안을 목표로 제시. 송장·린강·칭푸 등에 10만 카드급 초대형 AI 컴퓨팅 클러스터, 바오산·푸둥·자딩 등에 천 카드급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핵심 AI 하드웨어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칩의 대형 모델 적용 확대를 추진. AI 인프라 국산화와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산 AI 반도체, 광통신 밸류체인에 긍정적

반도체: SK하이닉스 다렌 공장 투자 재개, 중국산 장비 수요 확대 기대

- 8/11 현지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NAND 자회사 솔리다임이 중국 다렌 Fab 2 투자를 4년 만에 재개. 상반기 공장 건물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장비 반입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 NAND 양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신규 라인의 월 웨이퍼 투입능력은 약 5만장으로, 기존 다렌 생산능력 약 10만장 대비 중국 NAND 생산능력이 약 50% 확대될 전망. 다렌은 성숙 공정 기반 범용 NAND, 한국 청주는 300단 이상 첨단 NAND 생산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평가. 이에 따라 중국 내 식각·증착 등 반도체 장비 수요 확대 기대도 부각.

AI 인프라

캠브리콘(688256.SH): 매출액,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 상회

- 8/7 캠브리콘은 2분기 실적을 발표. 매출액은 31.1억위안(YoY +75.8%)으로 컨센서스 3.5% 상회, 순이익은 13.1억위안(YoY +92.5%)으로 컨센서스 1.2% 상회. 캠브리콘은 추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GLM과 딥시크, Qwen, Kimi, MiniMax 등 주요 국산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적응 지원을 완료하며 모델 커버리지를 확대. 훈련 플랫폼에서도 딥시크, Qwen, 훈위안 등의 적응·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일부 주요 대형 모델의 훈련 효율을 개선하였다고 밝힘. 국산 AI 칩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대응력이 강화되는 모습.

트리나솔라(688599.SH): 자회사 텐허싼리 중국판 팔란티어와 업무 협약 체결

- 8/9 자회사 텐허싼리가 '중국판 팔란티어'로 불리는 윈스테크(3317.HK)와 전력-연산 협력 및 Token Factory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부각. 태양광 본업을 넘어 신재생 전력과 AI 연산을 결합하는 신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행보로, 팔란티어 강세를 배경으로 8/10 윈스테크 주가는 +7.8% 오르는 등 전력-컴퓨팅 융합 테마가 주목받는 모습.

광모dul: 엔비디아, 중국 광모dul 기업 투자설 확산

- 8/12 엔비디아가 광모dul 대표 기업인 중지쉬창에 20억달러 규모 전략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Eoptolink H주 IPO에는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시장 루머가 확산. 투자금은 차세대 광모dul 개발과 글로벌 증설, 태국 공장 건설에 쓰일 것으로 전해짐. 다만 양사 모두 8/12 루머를 사실상 부인.

CATL

상장 국가

중국 본토/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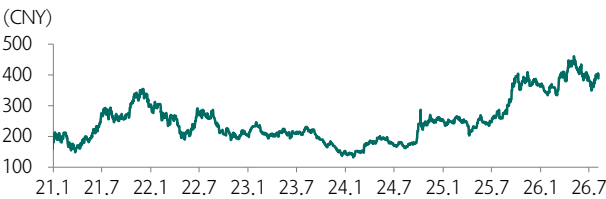
섹터

전기 부품 및 장비

시가총액(조원)

359.3

최근 주가 추이



전고체 배터리 2027년 파일럿 생산 개시 목표

- 8/11 CATL은 자사의 첫 전고체 배터리 셀을 2027년부터 소규모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CATL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일정은 BYD와 사실상 동일해졌지만, 두 회사 모두 파일럿 생산을 시작할 구체적인 월은 밝히지 않음.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의 유망 기술로 평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또는 젤 형태의 전해질을 세라믹·폴리머·유리 등으로 만든 고체 전해질로 대체. 이 기술은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며,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전기차의 주행거리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VTOL용 배터리 시스템, 열폭주 전파 방지 시험 통과

- 8/9 CATL은 eVTOL용 항공 배터리 시스템이 인접 셀 열폭주 전파 방지 시험 통과했다고 발표. 해당 배터리는 각형(prismatic) 셀 기반, 에너지밀도 350Wh/kg으로, 이 수준의 고에너지밀도 항공 배터리가 해당 시험을 통과한 것은 세계 최초. 시험에서 배터리팩 중앙·모서리 등 서로 다른 위치의 인접한 셀 2개를 동시에 열폭주시켰음에도 주변 셀로 열폭주가 전파되지 않음. 일반적으로는 셀 1개 열폭주 시 전파 여부를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인접 셀 2개를 동시에 작동시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 검증한 것.
- CATL은 해당 항공 배터리가 이미 양산 준비를 완료했으며, 우선 투자사인 AutoFlight의 승객용 eVTOL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힘. CATL은 2024년 AutoFlight에 수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단행했으며, 전기차를 넘어 전기선박·전기항공 등으로 배터리 적용처 확대 중임. AutoFlight는 중국 초기 eVTOL 업체 중 하나로, 2025년 11월 기준 누적 상업 주문 2,000대 확보함.

산업재

양광전력(300274.CH): ESS 프로젝트 계약 체결

- 8/1 양광전력은 치사 지역 200MW/800MWh ESS 프로젝트 계약 체결. 총 투자액은 8.36억위안으로 양광전력이 자체 개발·생산한 전기화학식 ESS 장비가 적용.
- 8/13 양광전력은 칠레 Verano Energy의 태양광, ESS 프로젝트인 Observatorio에 152MW/606MWh 규모 BESS를 공급. 해당 프로젝트는 135MW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되며 양광전력은 BESS용 PowerTitan2뿐 아니라 태양광 인버터도 함께 공급하고 25년 장기 서비스 계약(LTSA)까지 체결. 상업운전은 2028년 상반기 예정이며, 이번 수주는 중남미에서 양광전력이 인버터, ESS, 장기 유지보수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전기차

BYD(1211.HK): 일본에서 Racco 출시, 초기 목표(1,000대) 달성

- 8/9 보도에 따르면, BYD는 일본에서 전기 경차 Racco 7/28 출시, 2주만에 주문건 1,002대를 확보하며 초기 목표(1,000대) 달성. 최상위 트림 300 Premium 주문 비중 80%, 300 Plus 14%, 엔트리급 200 6%로 고사양 모델 선호 뚜렷. BYD는 일본 판매점을 현재 약 80개에서 2026년 말 100개, 2027년 말 120개로 확대할 계획.

샤오미(1810.HK): 연간 목표 판매량 달성률은 39%에 그침

- 7월 샤오미 판매량은 31,267대(YoY +2.7%, MoM -10.0%)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월 3만대 상회. 다만 전년 대비 성장세는 사실상 정체. 모델별 판매량은 SU7 21,044대(MoM +3.1%, YoY -13.8%), YU7 10,223대(MoM -28.6%, YoY +69.2%) 기록. 1~7월 누적 판매량은 21.6만대(YoY +14.8%)로 연간 목표 55만대의 39%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5개월간 월평균 약 6.7만대 판매 필요. 하반기 판매 확대 핵심은 9월 출시 예정인 신규 EREV Sky Nomad 시리즈. N90 Max 29.99만위안, N70 Max 25.99만위안으로 Tesla Model Y L(33.9만위안) 대비 낮은 가격으로 책정.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중국 성장 둔화, 유럽과 기타 지역 고성장

- 8/13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85만대로 YoY +9% 증가, 누적 기준 1,150만대 기록. 중국(YoY -5%)과 북미(YoY -27%)의 판매량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보조금 효과에 따른 유럽(YoY +33%)과 기타 지역(YoY +97%)의 판매량은 고성장해 글로벌 수요를 견인. 중국 내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 동력은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

유니트리

개인투자자 당첨률 0.018% 기록

- 8/10 유니트리 IPO 온라인 청약에는 약 978만 계좌가 참여해 과창판 역대 최대를 기록. 약 1,000만 명의 개인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하면서 회수 메커니즘이 발동됐고,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약 1/4 수준까지 확대. 유효 청약배수는 8,289배에 달했으며, 물량 재배정 이후 최종 당첨률은 0.0181%(5,526:1)로 과창판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이는 CXMT, 무어스레드, 메타엑스의 최근 IPO보다도 당첨 확률이 낮은 수준.
- 8/11 유니트리는 IPO 배정 결과를 발표. 총 공모물량 4,044.6만주 중 전략적 투자자 20%, 기관 56%, 개인 24%를 최종 배정. 전략적 배정 물량은 총 9개 투자자에게 배정됐으며, 이 중 전체 공모물량의 4.45%는 유니트리 경영진·핵심 임직원용 자산관리계획에 배정.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90억USD로 평가

- 전체 발행주식의 약 10%인 4,044만 주를 주당 150.8위안에 공모해 약 9억달러를 조달,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90억USD로 평가. 유니트리는 2026년 상반기 조정 순이익을 2.36억~2.83억위안으로 예상. 90억USD의 기업가치는 상반기 실적을 연율화한 순이익 기준 PER 118배에 해당. 이는 과거 중국 IPO에서 비공식적으로 PER 23배 수준에 밸류에이션 상한을 두던 관행과 크게 달라진 모습.
- CCB International은 유니트리의 상장 후 시가총액이 1,090억위안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목표 PSR 32배에 해당한다고 전망. 이를 목표치로 적용하면 상장 첫날 주가가 약 79% 상승할 수 있으며, 500주 1개 단위당 수익은 약 5.9만위안으로 추산. 다만 일부 기관은 다른 견해를 보이며 적정 시가총액을 300억~450억위안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 경우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 가능성도 있음.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은 누적 생산 1.8만대

- 8/13 유니트리는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누적 생산량이 약 1.8만대에 달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5월 G1 누적 생산량 1.1만대 대비 약 7,000대 증가한 수준. 최근 3개월 월평균 생산량은 약 2,300대로 확대되며 양산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지난해 유니트리가 전 세계에 판매한 로봇의 60% 이상은 공장이나 가정이 아니라 대학 및 빅테크 기업의 연구소에 공급. 그럼에도 시장이 유니트리를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하는 이유는 강력한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 때문. 전 세계의 선도적인 엔지니어들이 코딩 및 연구 과정에서 유니트리 로봇을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산업 현장에서도 이미 익숙해진 유니트리 생태계를 표준 플랫폼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출하량 6만대 예상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속화되고 있음. SAG에 따르면, 1H26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1.9만대로 전년 동기 5,100대의 3배 이상으로 증가, 중국 업체가 전체 출하량의 97% 이상을 차지. SAG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2026년 약 6만대까지 증가하고, 2030년에는 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Agibot(비상장): 1H26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 1위

- 샌프란시스코 시장조사업체 Smart Analytics Global(SAG)에 따르면, AgiBot이 2026년 상반기 Unitree를 제치고 글로벌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 올라섰음. 1H26 Agibot 출하량은 약 8,400대로 점유율 44%, 유니트리 로봇 출하량은 5,900대로 점유율은 약 31% 기록. SAG는 풀사이즈 이족보행 A시리즈, 소형 X시리즈, 바퀴형 G시리즈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가 고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분석.

리더드라이브(688017.CH): 유니트리 상장 소식에 주가 강세

- 8/11 유니트리 과창판 IPO 청약 경쟁률 소식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주 주가 강세 시현, 리더드라이브 주가 +9% 상승. GII에 따르면, 2025년 텍스처러스 핸드 판매량은 1.92만개로 YoY +236.8%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7.02만 개까지 확대될 전망. 리더드라이브는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시장 점유율은 27.5%로 2위 업체를 6%p 앞서고 있으며,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관절용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 잡았음.

위라이드(WRD.US): 2Q26 순이익 컨센서스 하회

- WeRide 2Q26 매출은 2.3억위안으로 YoY +82%/QoQ +103% 증가, 순손실은 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 매출은 컨센서스 36% 상회했으나 순이익은 컨센서스 -33% 하회. 실적 발표 이후 8/13 H주 주가는 -8% 하락, 외형 성장과 GPM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자 축소 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 전사 2Q26 GPM은 37.5%로 YoY +9.4%p 개선. 이는 Asset-light 방식의 해외 자율주행 사업 규모 확대, L2+/L3 사업의 빠른 성장, 고부가가치 AI 서비스 중심 매출로의 믹스 개선 등 요인에 기인.
-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해외 매출은 YoY +164%/QoQ +170% 급증. ADAS 사업 매출은 YoY 약 +2,600% 고성장. ADAS 누적 출하량은 3만대를 넘어섰으며, 회사는 이를 2026년 말 10만대, 2027년 5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 WeRide는 8월 초 덴마크에 진출하면서 유럽 사업 지역을 6개국으로 확대. 현재 WeRide의 자율주행 차량은 13개국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우한들 로보택시 서비스의 상업 운영을 시작할 예정.
- 7월 말 기준 WeRide의 글로벌 로보택시 운행 대수는 1,800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말까지 2,600대까지 확장할 것. WeRide가 Geely Farizon과 공동 개발한 로보택시 전용 모델 외에도 GAC와 또 다른 로보택시 모델을 공동 개발 중, 이를 통해 하드웨어 비용을 추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WeRide의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로보택시를 수만 대 규모로 배치하고, 2035년에는 100만 대까지 확대하는 것. WeRide는 2028년까지 단일 분기 기준 현금흐름 흑자, 2029년 연간 기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6E	2027E	2026E	2027E			
CXMT(688825.CH)	0.8	22.2	62.4	398.3	67.4	7,947.1	79.9	41,683.7	(983.1)	2026-08-28
기가디바이스(603986.CH)	(3.0)	32.3	38.2	138.2	30.8	477.1	28.4	438.7	0.0	2026-08-24
캠브리콘(688256.CH)	(7.9)	119.2	38.0	172.1	90.7	191.9	93.4	182.9	(28.1)	2026-10-19
해광정보(688041.CH)	(3.3)	141.0	17.7	56.4	46.6	81.6	64.5	86.0	0.0	2026-08-13
비렌테크(6082.HK)	(5.0)	-	5.8	129.0	252.6	적지	흑자	(95.4)	0.0	2026-08-19
일루바타코어엑스(9903.HK)	(11.1)	-	(12.6)	176.9	128.5	적지	흑자	(61.9)	0.0	2026-08-19
북방화창(002371.CH)	(1.8)	69.6	17.5	28.8	29.1	38.5	48.3	39.8	0.3	2026-08-25
AMEC(688012.CH)	0.8	88.1	13.7	34.4	35.7	80.9	35.8	142.8	3.2	2026-08-19
SMIC(0981.HK)	1.1	64.8	4.8	23.8	19.1	55.5	42.6	51.2	(1.1)	2026-08-13
JCET(600584.CH)	0.1	61.1	7.4	13.1	15.1	48.4	39.6	55.0	0.0	2026-08-20
란치테크놀로지(688008.CH)	(2.5)	69.0	21.9	37.0	45.9	61.2	50.5	62.9	0.0	2026-08-31
빅토리아언트(300476.CH)	(3.2)	30.0	27.4	69.8	75.9	105.0	82.5	79.9	0.0	2026-08-26
중지쉬창(300308.CH)	0.1	34.1	61.6	162.6	79.1	196.9	84.7	175.5	9.5	2026-08-21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3)	22.1	31.2	62.5	32.9	71.3	33.6	69.3	(1.7)	2026-10-29
즈푸AI(2513.HK)	2.8	-	7.3	492.1	196.4	적지	적지	(96.2)	0.0	2026-08-19
알리바바(BABA.US)	(2.5)	18.8	8.8	9.9	11.8	(11.7)	40.1	117.8	(0.2)	2026-08-20
텐센트(0700.HK)	(7.9)	12.8	18.9	10.0	9.5	4.7	9.0	25.3	(0.5)	2026-11-13
바이두(BIDU.US)	(4.4)	15.1	5.1	0.2	7.0	131.8	23.7	3.5	(2.2)	2026-08-18
레노버(0992.HK)	20.8	22.2	30.0	14.4	13.8	30.1	30.6	29.3	0.0	2026-08-13
샤오미(1810.HK)	(4.4)	20.8	9.2	0.3	17.6	(37.5)	34.2	(13.6)	(2.7)	2026-08-18
유비테크(9880.HK)	0.6	-	(4.6)	92.2	51.3	적지	흑자	(61.4)	0.0	2026-08-31
BYD(1211.HK)	(1.9)	17.4	15.0	13.2	10.0	21.2	28.7	29.9	(0.7)	2026-08-29
CATL(300750.CH/3750.HK)	2.1	19.1	24.6	46.5	22.1	32.8	24.1	39.3	(0.1)	2026-10-20
양광전력(300274.CH)	3.5	16.5	26.2	13.6	20.1	7.7	24.0	15.1	(0.9)	2026-08-28
선도지능(300450.CH/0470.HK)	(0.8)	23.1	17.0	31.2	27.6	60.2	38.6	52.4	0.0	2026-08-28
허사이트크(HSAI.US)	(1.0)	32.7	6.4	43.6	40.3	23.9	66.2	31.5	0.0	2026-08-18
중천과기(600522.CH)	(2.3)	17.4	16.7	23.3	14.8	154.2	42.7	124.8	0.0	2026-08-27
사원전기(002028.CH)	3.8	31.7	23.4	31.3	29.3	32.8	38.4	31.3	(0.4)	2026-08-14
동방전기(600875.CH)	(1.3)	19.5	10.0	10.3	8.4	35.6	31.9	26.2	0.0	2026-08-28
평균	(1.1)	40.8	18.9	80.5	49.3	393.7	44.6	1,491.9	(34.8)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6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